

이슈 브리핑

● 친환경차 / 탄소중립

- (HEV) GM, 브라질서 100% 에탄올로 주행 가능한 하이브리드 생산 추진
- (EV) 노르웨이, '24.8월 전기차 판매 비중 94%로 기록 경신
- (항공) EasyJet, JetZero와 친환경 항공기 개발 추진

● 자율주행 / SW / 미래모빌리티

- (자율주행) Waymo, 자사 로보택시 사고 데이터 허브 개설
- (자율주행) Geely, 세 번째 저궤도 인공 위성 발사 성공
- (반도체) 중국 완성차사들, 현지 기업 반도체 채택 가속화

● 글로벌 주요 부품사 동향

- (Denso) 기존 공장 확장을 통한 ECU 생산공장 신설 추진
- (Panasonic) 일본 내 BEV 배터리 공급망 확대, Subaru-Mazda와 협력

친환경차 / 탄소중립

◆ (HEV) GM, 브라질서 100% 에탄올로 주행 가능한 하이브리드 생산 추진

- '24.9월 GM은 브라질에서 100% 에탄올 또는 가솔린으로 운행 가능한 플렉스 하이브리드 차량(Hybrid-flex)을 생산하겠다고 발표
 - * Stellantis와 Honda 또한 각각 '24.3월과 4월 브라질에 해당 차종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
- GM은 상파울루주 내 공장에서 두 가지 모델을 생산할 계획으로, 해당 차량들의 출시 예정일은 공표하지 않았으나 현지 노조에 따르면 '25년 출시될 전망
 - * 브라질은 연료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바이오에탄올을 장려해왔는데, 휘발유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활용 중('24.9월 기준 에탄올 리터당 R\$ 4.04(약 967.6원), 휘발유 R\$ 6.09)
 - ※ Reuters('24.9.5.) <https://www.reuters.com/sustainability/gm-launch-its-first-ethanol-capable-hybrid-flex-vehicles-brazil-2024-09-04/>

◆ (EV) 노르웨이, '24.8월 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 94%로 기록 경신

- 노르웨이 도로교통정보원(OFV)에 따르면 '24.8월 노르웨이 전기차(BEV) 신규 등록 수 (11,114대)는 전체 승용차 신규 등록 수(10,480대) 중 94.3%의 비중을 차지했는데, 이로써 '24.1월 세운 기록(92.1%)을 경신
 - * 가솔린 HEV 2.2%, 디젤 1.5%, 가솔린 PHEV 1.4%, 가솔린 0.5%
- 이번 전기차 등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%가량 증가하였는데, 관련하여 OFV 관계자는 노르웨이가 '25년까지 무배출 차량 판매 비중 100%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
 - * 한편 트럭 부문은 그간 전기차의 비중이 매우 낮았으나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로, '24년 전체 차량 판매량 (3,000대 가량, 16톤 이상 기준) 중 전기차 비중은 7%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% 증가한 수치
 - ※ OFV('24.9.2.) <https://ofv.no/aktuelt/2024/nybilsalget-i-august-h%C3%B8yeste-elbilandel-noensinne>

◆ (항공) EasyJet, JetZero와 친환경 항공기 개발 추진

- 영 항공사 EasyJet은 미 스타트업 JetZero와 수소 및 SAF(지속가능 항공연료)로 운항 가능한 항공기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
- 이번 항공기는 미 공군, NASA(항공우주국), FAA(연방항공청) 등으로부터 총 \$2.35억 (약 3,154억원)을 지원 받았으며, 기존 항공기와 달리 동체-날개 혼합형 디자인(BWB)을 채택함으로써 연료 소모량과 탄소 배출량을 50% 가량 줄여 효율성을 개선
 - * 운항 개시 시점은 '30년으로 예상
 - ※ H2-View('24.9.4.) <https://www.h2-view.com/story/easyjet-partners-with-jetzero-to-develop-hydrogen-powered-aircraft/2114456>

◆ (자율주행) Waymo, 자사 로보택시 사고 데이터 허브 개설

- Waymo는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,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인 로보택시 주행거리 및 사고 데이터 허브를 개설하고 로보택시와 인간 운전자의 안전성을 비교함
- 동사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, Waymo 로보택시는 피닉스, 샌프란시스코*에서 동일 거리를 주행한 인간 운전자보다 에어백 전개 사고가 84%, 부상 사고가 73%, 경찰에게 접수된 사고가 48% 적었음

* '24.6월까지 해당 지역의 Waymo 로보택시 주행거리 3,430만km에 대한 분석으로, 동사는 로스앤젤레스, 오스틴 주행거리 140만km는 데이터가 적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분석에서 제외함

** 또한, Waymo 로보택시 사고 중 충돌 시 속도 변화(Delta-V)가 1.6km/h 미만인 경미한 사고는 43%라고 밝힘

※ Waymo('24.9.5.) <https://waymo.com/safety/impact/#methodology>

The Verge('24.9.6.) <https://www.theverge.com/2024/9/5/24235078/waymo-safety-hub-miles-crashes-robotaxi-transparency>

◆ (자율주행) Geely, 세 번째 저궤도 인공 위성 발사 성공

- 저궤도 위성*으로 자사 브랜드 차량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Geely는 '22.6월, '24.2월에 이어 인공 위성 자회사 Geespace의 저궤도 위성 10개를 궤도에 올렸으며, 총 30개 위성으로 전세계 90% 지역에서 24시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힘

* LEO(Low Earth orbit) 위성: 300~2,000km의 고도에 위치하며,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초저지연 통신망 구축 가능

- 동사는 '25년까지 위성 72개를 배치해 전 세계 2억 명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, 이후 위성 265개를 추가해 이동 통신을 지원하며, 마지막으로 위성 5,676개를 추가해 고속 광대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

※ Reuters('24.9.6.) <https://www.reuters.com/technology/space/chinas-geospace-launches-10-low-orbit-satellites-eyeing-starlink-2024-09-06/>

Nikkei('24.9.6.) <https://www.nikkei.com/article/DGXZQGM067070W4A900C2000000/>

◆ (반도체) 중국 완성차사들, 현지 기업 반도체 채택 가속화

- Nikkei Xtech가 Zeekr '007'을 분해한 결과, 자율주행/ADAS용 AI 반도체로 Nvidia 뿐만 아니라, 중국 현지 기업 Horizon Robotics* 제품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

* Horizon의 중국 내 ADAS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'22년 3.7%에서 '23년 21.3%로 급증해 Mobileye에 이어 2위 차지

- 이에 대해 Nikkei Xtech는 최근 중국 정부가 현지 완성차사에 중국산 반도체 확대 적용을 요구하는 가운데, 고급형은 Nvidia와 함께 Horizon이 채택되고, 중급형 이하는 Mobileye 제품이 완성차사 자체제작 또는 Horizon으로 대체되는 등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평가

* 다만, 중국 외에는 보안 우려로 인해 Mobileye가 계속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임

※ Nikkei Xtech('24.9.6.) <https://xtech.nikkei.com/atcl/nxt/column/18/02885/090400020/>

◆ (Denso) 기존 공장 확장을 통한 ECU 생산공장 신설 추진

- Denso는 SDV·EV 전환에 따라 차량 기능의 전반적인 제어를 위한 통합 ECU 수요를 예상하고, 아이치현 니시오시 전묘 공장 부지를 확장해 ECU 생산공장 신설 계획* 발표

* 총투자액 약 690억 엔, FY2025 상반기 착공, '27.1월 준공, FY2028 상반기부터 가동할 예정

- 신공장에 유연생산시스템*을 도입하여 제품 유형, 수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고, 디지털 트윈 기술로 가상 공장에서 사전 검증을 통해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구축 예정

* 소재 및 부품, 생산 장비,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하나의 라인에서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고, 생산 준비 시간 단축

- 또한 공장을 카메라·센서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원격으로 생산 설비가 가동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, 전공정 자동화를 통한 24시간 무인 운영을 목표로함

※ Denso('24.9.9.) <https://www.denso.com/global/en/news/newsroom/2024/20240909-g01/>

◆ (Panasonic) 일본 내 BEV 배터리 공급망 확대, Subaru·Mazda와 협력

- Panasonic Energy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원을 받아 자국 BEV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, 제조 기반 구축 및 공급망 확대를 위해 Subaru, Mazda와 BEV용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 협력을 발표

- '27.4월부터 Panasonic Energy의 오사카 스미노에 공장에서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여 Subaru에 공급하고, 양사는 군마현 오이즈미정에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을 공동 설립하여 '28.4월부터 Subaru에 배터리 공급 예정

* 총투자액 4,630억 엔(경제산업성이 최대 1,564억 엔 지원), 이번 협력을 통해 '30년까지 연간 생산 능력 20GWh 구축 목표

- Panasonic Energy는 오사카 스미노에 및 가이즈카 공장의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 능력을 확대하여, '27년 출시 예정인 Mazda의 최초 BEV 모델에 배터리 공급 계획

* 총투자액 833억 엔(경제산업성이 최대 283억 엔 지원), 이번 협력을 통해 '30년까지 연간 생산 능력 10GWh 구축 목표

※ Reuters('24.9.5.) <https://www.reuters.com/business/autos-transportation/toyota-nissan-support-japans-battery-production-capacity-nikkei-reports-2024-09-05/>

Subaru('24.9.6.) https://www.subaru.co.jp/news-en/2024_09_06_154205/

Mazda('24.9.6.) <https://www.acnnewswire.com/press-release/english/92746/panasonic-energy-and-mazda-to-begin-preparation-for-supply-of-automotive-lithium-ion-batteries>